

‘숲속의 청소부’ 버섯

이 현 행

진원동초등학교 6학년

‘딱딱딱’ 어머니께서 버섯을 썰고 계신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버섯무침을 하시려나 보다. 그 중에서도 난 느타리버섯을 자주 먹는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버섯을 싫어한 적도 있었다.

그때는 갓을 뒤집어 쓴 버섯이라고 갓쟁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버섯을 싫어하였다.

그렇지만 지금은 버섯과 함께 지내고 있다.

‘냠냠쩍쩍’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였다. 버섯무침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버섯을 먹고, 나는 버섯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버섯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버섯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 등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해로운 버섯도 있었다. 광대버섯, 독갈매기버섯, 외대버섯 등이 있었다. 또 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버섯이 항암작용에 좋다고 하였다. 그 약용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영지버섯이다. 항암작용이 뛰어난 영지버섯은 암을 치료하기도 하였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버섯은 썩은 나무 위에서 잘 자라며 필요한 양분은 썩은 나무를 분해하여 섭취하여 ‘숲속의 청소부’라고도 불린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버섯처럼 우리나라를 깨끗히 치워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버섯은 이롭기도 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버섯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알게 된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싶다.

또 이젠 버섯을 더 좋아하고 친구들에게도 권하여 같이 먹도록 하겠다.

버섯을 재배하는 곳에도 가 보고, 버섯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버섯을 귀중하게 여기고 버섯을 재배하는 어저씨께 항상 감사하며 버섯을 먹겠다.

그리고 버섯에는 위험한 버섯도 있으니, 함부로 버섯을 따지 않겠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직접 버섯을 재배하여 버섯요리를 하여 먹어 보고싶다.